

‘돈 잔치’ PGA 투어 챔피언십 4일 개막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 상위 30명 출전... 임성재 출격 우승상금만 178억원... 펼쳐해도 4억6000만원 받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9-2020시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이 4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7319야드)에서 개막한다.

이 대회는 지난해 10월 개막한 2019-2020시즌의 마지막 경기로 선수들의 대회별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 상위 30명만 출전할 수 있다.

여느 대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승자를 정한다.

출전 선수들이 똑같은 출발 선상에서 1라운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달 말에 끝난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까지 페덱스컵 순위에서 따라 보너스 타수를 안은 상황에서 경기가 나뉜다.

페덱스컵 1위로 이 대회를 시작하는 더스틴 존슨(미국)은 10인더파를 미리 받았고, 2위 온 람(스페인)은 8인더파, 3위 저스틴 토머스(미국)는 7인더파 등이 기본 출발 지점이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22)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 진출에 성공했다.

임성재의 페덱스컵 순위는 9위로 4인더파를 안고 경기를 시작한다.

임성재는 신인이던 지난해 페덱스컵을 19위로 마쳤다. 한국 선수의 페덱스컵 역대 최고 순위는 2007년 최경주(50)의 5위다.

5위는 5인더파를 안고 대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임성재로서는 얼마든지 5위 이상을 노려볼 수 있다.

이 대회 우승으로 2019-2020시즌 페덱스컵 챔피언에 오르는 선수에게

는 페덱스컵 보너스 1500만달러(약 178억원)를 준다.

이 돈은 시즌 상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회 우승은 공식 우승으로 인정된다. 1400만달러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100만달러는 은퇴 연금 형식으로 적립된다. 준우승자 보너스는 500만달러를 받고, 최하위 30위를 해도 4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39만5000달러를 가져갈 수 있다.

현재 페덱스컵과 세계 랭킹 모두 1위인 존슨은 플레이오프 1차전 노던 트러스트 우승, 2차전 BMW 챔피언십에서 준우승 등 기세가 좋다.

2007년 창설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제도에서 아직 챔피언에 오른 적이 없지만 플레이오프 대회에서는 5차례나 우승한 경력이 있다.

역시 페덱스컵과 세계 랭킹 모두 2위를 달리는 람은 BMW 챔피언십 연장에서 20m 바디 퍼트를 넣고 존슨을 꺾은 상승세를 이어갈 태세다.

지난해 페덱스컵 챔피언 로리 매

킬로이(북아일랜드)는 현재 페덱스컵 순위 12위에 올라 있다.

만일 매킬로이가 우승하면 페덱스컵 사상 최초로 챔피언에 세 번 등극하는 선수가 된다. 다만 그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불참 또는 기권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매킬로이 외에 페덱스컵을 두 번 제패한 선수는 타이거 우즈(미국)가 유일하다. 우즈는 그러나 최근 2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 진출에 실패했다.

현재 페덱스컵 3위 토머스가 올해 페덱스컵을 제패하면 우즈, 매킬로이에 이어 페덱스컵 정상에 두 번 오르는 세 번째 선수가 된다.

지난해에는 BMW 챔피언십까지 5위였던 매킬로이가 1위였던 토머스와 5타 차를 뒤집고 페덱스컵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현지시간으로 금요일인 4일 개막해 월요일인 7일에 끝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안양전에서 1골·1도움으로 활약한 주민규(왼쪽).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제주Utd K리그2 선두 수성 “자신” “공격수 주민규 부활... 안양전서 1골 1도움”

제주유나이티드의 간판공격수 주민규(30)가 기나긴 골 침묵을 깨뜨리며 부활의 기지개를 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주민규는 지난해 K리그2 준우승팀인 울산현대를 떠나 제주 유니폼을 입었다. 더 많은 경기 출장을 원했던 주민규와 1부리그 승격을 목표로 잡은 제주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2015시즌 K리그2 무대에서 역대 국내 선수 최다득점인 23골을 기록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출발은 좋았다. 주민규는 5월 9일 서울이랜드와의 홈 개막전(1-1 무)에서 페널티킥 선제공격을 터트리며 ‘맨 오브 더 매치(MOM·경기 최우수선수)’까지 선정됐다. 이후 5월 23일 3라운드 대전전부터 5월 31일 5라운드 안산전까지 3경기 연속골을 터트리며 ‘주민규 선발=골’이라는 기분 좋은 공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6월 13일 수원FC와의 6라운드 홈 경기부터 득점포가 식어버렸다. 골문도 따라주지 않았다. 6월 28일 경남전과 7월 26일 대전전에서 모두 페널티킥 키퍼로 나섰지만 실

축을 범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티는 제거 수순 어파로 컨디션 난조까지 보이며 주민규의 부활은 더욱 길어졌다.

이후 8월 26일 부천과의 순연경기(4-0 승)에서 다시 선발라인업에 복귀한 주민규는 지난달 29일 제주 홈 경기 출장을 원했던 주민규와 1부리그 승격을 목표로 잡은 제주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2015시즌 K리그2 무대에서 역대 국내 선수 최다득점인 23골을 기록한 점도 주목을 받았다.

출발은 좋았다. 주민규는 5월 9일 서울이랜드와의 홈 개막전(1-1 무)에서 페널티킥 선제공격을 터트리며 ‘맨 오브 더 매치(MOM·경기 최우수선수)’까지 선정됐다. 이후 5월 23일 3라운드 대전전부터 5월 31일 5라운드 안산전까지 3경기 연속골을 터트리며 ‘주민규 선발=골’이라는 기분 좋은 공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6월 13일 수원FC와의 6라운드 홈 경기부터 득점포가 식어버렸다. 골문도 따라주지 않았다. 6월 28일 경남전과 7월 26일 대전전에서 모두 페널티킥 키퍼로 나섰지만 실

승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최지만 최고 몸값 거릿 콜 상대 또 흡련

최지만(29·사진·탐파베이 레이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투수 거릿 콜(뉴욕 양키스)을 또 흡련으로 무너뜨렸다.

최지만은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육구 양키 스타디움에서 양키스와 벌인 2020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선제 2점포를 포함해 3타수 3안타 3타점 득점 2볼넷으로 활약했다.

최지만의 5홈루 활약을 앞세워 탐

파베이는 양키스를 5-3으로 꺾고 6연승을 질주,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선두 자리를 다졌다.

최지만은 시즌 2호 흡련도 콜을 상대로 뽑아냈다. 지난달 20일 양키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양키스전 2회초 첫 타석에서 콜의 체인지업을 잡아 당겨 우월 흡련을 쳤다.

지난해 흡련 1개를 포함해 최지만이 콜을 상대로 흡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연합뉴스

권순우, US오픈 테니스 64강 진출

메이저대회 단식 본선 승리 한국 남자선수로는 세번째 3일 세계 17위와 대회 2회전

권순우(73위·CJ후원)가 한국 남자 선수로는 통산 세 번째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승리를 따냈다.

당시시청 소속 권순우는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340만 달러) 첫날 남자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타이·손크위아트코스키(187위·미국)에게 3-1(3-6 7-6<7-4> 6-1 6-2)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권순우는 서브 에이스에서 3-1로 열세였지만 공격 성공 횟수에서 50-33으로 우위를 보이며 3세트 이후 경기를 주도했다.

이로써 권순우는 이형택(은퇴)과 정현(144위·체네시스 후원)에 이어 한국 남자선수 통산 세 번째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 2회전에 오른 선수가 됐다. 이형택은 2000년 US오픈, 정현은 2015년 US오픈에



서 각각 메이저 단식 본선 첫 승을 거뒀으며 권순우 역시 US오픈에서 첫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권순우는 2회전인 64강전에서 테니스 샤프발로프(17위·캐나다)를 상대한다. 이 경기는 이를 뒤인 3일에 열릴 예정이다.

1회전을 통과한 권순우는 단식 본선 2회전 상금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를 확보했다.

‘4전 5기’에 성공한 권순우의 다음 상대 샤프발로프는 1999년생이지만 이미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단식 우승 경력도 한 차례 있고, 개인 최고 랭킹이 올해 1월 13위인 톱 랭커다. 연합뉴스

3연전 승리 남기일 ‘이달의 감독’ 선정

남기일 제주 감독이 ‘신라스테이 8월의 감독’으로 선정됐다. K리그2 감독으로는 올 시즌 처음이다.

남기일 감독이 8월의 감독으로 뽑힐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8월에 진행된 홈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제주는 안산-부천-안양으로 이어지는 홈 3연전에서

합계 10골을 몰아치며 모두 승리했다. 특히 8월 26일 열린 10라운드 순연경기 부천전에서는 4대0 승리를 거두며 수원FC를 따돌리고 1위 자리에 올랐다. 8월 무패행진에 힘입어 제주는 2위 수원FC와의 승점 차이를 2점으로 벌리면서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고 있다. 승은범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국정 8:25 KBS 시청자 주간 이철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공간 스페셜(재) 11:55 스포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KBS 시청자 주간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기쁜날 유산(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능이 그늘이다(재) 11:50 통영뉴스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30 2020 메이저리그 김광현 선발경기 10:30 기분 좋은 날 11:15 백퍼드 요린이 레시피 11:20 내가 가장 예뻐할 때(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엄마가 바람났다 9:10 종로이집 10:10 SBS 뉴스 10:30 실컷 내는 오늘 11:00 예나그려라! 11:30 에나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11:45 블로카트 9 리턴즈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뽀롱뽀롱 뽀로로 8:45 워킹맘 유지원 9:40 생방송 우리집 유지원 10:50 최고의 요리매달 12:10 비즈니스 리부 플러스 14:45 미니특공대X 16:15 최강의 호기심탐험 16:30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19:30 자이언티 뽀롱TV 22:45 극한직업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킹 특선 백투더유지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30 중계방송 이홍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시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동물의 왕국	12:10 신상출시 권스트링(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문화상 위키2 15:30 TV 유지원 16:00 제보자들(재) 17:00 신비이파트 고스트 볼 X 탄생 17:30 골뎀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룸 DT	12:00 12 MBC 뉴스 12:20 처치평평 12:50 뽀롱뽀롱 친구친구 스페셜 13:20 헬로키키 신비한 자연교섭 2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20 테마기획 길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보라스를 좋아하세요?(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월드컵산 GoGo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8.9MHz 7:00 김탁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야생동물뉴스 12:05 천왕의 숲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시사저널 정광원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채신아의 가스펠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2020 제주 조정래의 제주리만(재) 20:30 기막힌 유산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8:30 2TV 생생정보 19:50 KBS 시청자 주간 양코리 인강국정 20:30 제보자들 21:30 특집 다시 보는 동백꽃 필 무렵 22:45 박원순의 같이 살시다 1부 23:20 박원순의 같이 살시다 2부 23:55 스투디오 K	18:20 생방송 오늘 저녁 19:20 찬란한 내 인생 19:55 MBC 뉴스데스크 1부 20:50 MBC 뉴스데스크 2부 21:30 내가 가장 예뻐할 때 1부 22:10 내가 가장 예뻐할 때 2부 22:50 라디오스타 1부 23:50 라디오스타 2부	18:00 백종원의 골목식당 19:00 골목! NOW 제주 스페셜 19:30 마이 드림하우스 인 제주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토론회가 됐다 1부 21:35 토론회가 됐다 2부 22:05 토론회가 됐다 3부 22:35 백종원의 골목식당 1부 23:20 백종원의 골목식당 2부	8:00 SCUBA 리포트 스페셜 8:30 제주어 탐구생활 별테시대 9:00 KCTV 뉴스 10:20 KCTV VOD 영화쇼케 12:30 KCTV 시청자대상 13:10 KCTV 디류스페셜 14:30 제주어 탐구생활 별테시대 15:1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16:00 KCTV 디류스페셜 18:00 SCUBA 리포트 스페셜 18:30 제주어 탐구생활 별테시대 21:00 KCTV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KBS2 ☎ 064-740-2432 / MBC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2일
	36년 허세를 부리면 구설수에 오르니 언행 자제. 48년 반가운 손님이 방문하거나 소식이 온다. 형제간 친목이 있다. 60년 문서·매매계약은 불리하니 다음으로 미루거나 훗날을 기약하라. 72년 직장내 이동, 변화가 있으며 사업장의 광고서 인허가 등의 문제 해결. 84년 서두르던 일이 안 풀리니 신중하라.
	37년 자녀로 인한 기쁨 또는 경사가 있다. 손님이 방문. 49년 출타할 일이 생긴다. 자금 지출할 문제가 생기니 행동 조심. 61년 활동이 커지고 부주하다. 그리운 친구의 소식을 듣는다. 73년 마음이 밝혀져 기분이 호전되고 동업이나 친목을 도모하려고 한다. 86년 분사 또는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라. 기쁨이 있다.
	38년 의욕이 넘치고 몸이 분주. 혈압이 높아지거나 당뇨 조심. 50년 집안의 어른께 예경사가 생기니 안부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다. 62년 재물 분실수가 있으니 외출 시 문닫금 철저히. 연행에 유의하라. 75년 활동력 왕성. 전론에게 유리. 매출 증대. 87년 내일보다 오늘 현실이 더 중요하니 변동하지 마라.
	39년 화합과 협조가 일의 능률을 높이고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51년 잊어둔 문제로 다소 걱정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재물지출이 따른다. 63년 간섭하지 말 것. 잠점 시 오히려 실이 많다. 연행에 유의하라. 75년 활동력 왕성. 전론에게 유리. 매출 증대. 87년 내일보다 오늘 현실이 더 중요하니 변동하지 마라.
	40년 함께 여가를 즐기고 여행이나 외출을 즐겨라. 52년 자녀로 인한 소식을 접한다. 자녀혼인 또는 자녀에게 취업 소식이 있다. 64년 재물 또는 문서가 있는 날. 광고서와 관계있는 일 기쁨이 있다. 76년 이동, 변화가 생기는 날. 업무량이 늘어난다. 88년 짐체된 의욕에서 점차 회복하고 하는 일이 좋아진다.
	41년 귀인 도움으로 할 일이 생기고 재물에 이득이 발생. 희망을 가져라. 53년 집착할 일이 생기거나 생 각지 않던 일이 오면 마무리를 잘 할 것. 65년 가족과 함께 지낼 일이 생긴다. 77년 준비하는 마음과 새로운 속에 갈등 고민. 89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존경받는다. 대인관계에서 인정받는다.
	42년 사소한 일로 분쟁을 하니 마음을 이해하고 칭찬하라. 54년 음식을 함께 먹을 일이 생긴다. 친목이 이뤄진다. 66년 반가운 친지가 객식구의 방문으로 분주. 부부애정에 최선을 다하라. 78년 직장이나 업무에서 인정받고 길하나 자만심은 금물. 90년 과음, 과식은 체중관리와 건강관리에 적신호.
	43년 갈 데가 많은데 지출이 많아 고민한다. 축의금 낼 곳이 많아진다. 55년 투자처가 생기니 기대이익이 적은 편. 67년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의 선택을 고민한다. 본인의 의지대로 추진하라. 79년 동료나 친구 이성관계에서 갈등. 불화가 생긴다. 91년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언행은 금치. 출산수면으로 인정받는다.
	44년 과욕은 화를 부른다. 말이 많으면 손해. 구설이 함께 온다. 56년 할 일이 생기고 직장이나 사업은 업무과다로 피곤. 68년 정신적 안정이 필요. 차량, 오토바이 운전 조심. 80년 자만심과 독단은 나를 고독하게 할 수 있다. 92년 불확실해 들어가는 여유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때.
	45년 단체모임이나 동창회에 갈 일이 생긴다. 내 자랑을 많이 하면 돈이 그만큼 나가게 된다. 57년 친지나 객식구의 방문으로 반가우나 할 일이 많아지고 바쁘다. 69년 갈 곳도 많고 모임도 겹친다. 술은 자제. 81년 시직할 일은 최선을 다하라. 결과에 인정받는다. 93년 귀인의 만남과 대화로 시원함이 있다.
	46년 휴식이 필요하니 운전욕도 좋다. 58년 몸이 지쳐 탈이 나거나 식중독 등 음식 주의. 70년 목돈이 필요. 잊버리나 부모, 형제의 도움을 청하는 게 유리하다. 82년 과로하지 마라. 삶을 즐기는 여유가 필요. 94년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경사가 있다. 친정과 양보가 미덕이다.
	47년 분주하고 활동적인 만큼 수익이 발생한다. 59년 친구나 동업자의 협조로 할 일이 생기고 자금 여유가 된다. 조기 귀가. 71년 자신감이 있고 의욕이 좋다. 주어진 일 마무리를 잘하라. 83년 쓸데없는 욕심, 욕망은 마음만 다치고 고민으로 가득 찬다. 95년 목표를 정하고 충실히 시작하면 길이 열린다.